

# 중국어 결과보어구문의 보어위치이동과 빈어문제

崔圭鈇\*

##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보어의 출현문제 |
| 2. 보어의 위치이동 | 5. 맺음말      |
| 3. 보어의 형태문제 |             |

## 1. 머리말

중국어는 한국어나 영어의 보어개념과는 다른 범주의 補語라는 독특한 문장성분을 갖고 있다. 근래에는 이러한 보어에 관한 통시적 공시적 논문과 통사적 측면의 배가어법 생성어법 논문이 나오고 있다. 보어의 어휘적 결합은 일반 문장성분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어·술어·빈어 등을 구성하는 어휘는 어휘사전에 모두 나열할 수 있으나, 보어는 그렇지가 않다. 더욱이 보어를 구성하는 동사 형용사와 극소수의 부사는 자유롭게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법과 어휘의 제한을 받아, 결합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결과보어구문의 여러 문제중, 통시적 관점에서 보어의 위치이동과 공시적 관점에서 빈어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

\* 고려대 중문과 부교수

## 2. 보어의 위치이동

결과보어구문에서 VP+RC의 직접구성요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動詞·形容詞로 구성되어 있다. “輸鐵”·“養家”·“凍木”에서 처럼 명사“鐵”·“家”·“木”가 보어로 쓰이는 것은 특수한 예이며, VP+RC의 가장 일반적인 문형은, “吃醉”·“吃飽”·“哭紅”·“睡醒”·“看哭”·“走累”와 같은 유형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일반적인 결과보어구문은 VP<sub>1</sub>+VP<sub>2RC</sub>+NP 문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구문이 현대한어 이전에는 VP<sub>1</sub>+VP<sub>2RC</sub>+NP와 VP<sub>1</sub>+NP+VP<sub>2RC</sub> 문형이 같이 쓰였다. 漢代를 전후로 한 VP<sub>1</sub>+VP<sub>2RC</sub>+NP 문형의 예문을 보자.

(2.1) 諸侯伐衛，戰敗衛師。(左·莊 28)

(제후들이 위나라를 정벌하여, 위나라 군대를 싸워 패하게 했다.)

(2.2) 二十四年，楚孝王伐滅魯。(史·魯周公世家)

(24년 초효왕이 노나라를 정벌하여 멸망시켰다.)

(2.3) 羊踏破菜園。(笑林·59)

(양들이 채소밭을 짓밟아 망쳤다.)

(2.4) 打壞木栖床。(樂府·讀曲歌)

(나무 침대를 부수었다.)

(2.5) 漢氏減輕田租。(漢書·王莽傳)

(한 왕조가 조세를 감하여 가볍게 하였다.)

위의 예문은 王, 潘, 太田氏 등이 使成式(動結式)으로 든 예문들인데, 現代漢語 結果補語의 文型和 완전히 똑같다. 그런데 王力(1990)은 사성식 발전의 前段階에서는 동사와 보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지 않아, 동사와 보어가 빈어에 의해 떨어질 수 있는 현상이 생긴다며, 아래처럼 VP<sub>1</sub>+NP+VP<sub>2RC</sub>의 예문을 든다.

(2.6) 吹歡羅裳開，動儂含笑容。(子夜四時歌·夏歌)

(바람 불어서 그대 비단치마자락 날리니, 난 그만 얼굴에 웃음머금네.)

(2.7) 石角鉤衣破，藤枝刺眼新。(杜甫·奉陪鄧錡馬韋曲)

(돌 모서리에 옷 걸려 찢기고, 등나무 가지 눈 찌를 듯 새롭다.)

(2.8) 檢書燒燭短，看劍引杯長。(杜甫·夜宴左氏莊)

(불 밝혀 책 뒤적이며 초 짧아지도록 태우고, 칼 바라보며 늦도록 잔 기울인다.)

(2.9) 誰能拆籠破，從放快飛鳴。(白居易·鸚鵡)

(누가 조롱을 깨 부수고, 자유로이 풀려나 날며 우깃게 해줄까?)

(2.10) 風吹草低見牛羊 (斛律金·勅勒歌)<sup>1)</sup>

(바람 불어 풀 누우니 소, 양이 보인다)

(2.11) 王婆收拾房裏乾淨了。(水滸傳·20回)

(왕파가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王力은 위와 같이 VP1NPVP2RC의 예를 들면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使成式 사이에 빈어를 삽입할 수 없다면서, 빈어 출현시에는 VP1VP2RC文型的 “是怕這氣兒大了，吹倒了林姑娘；氣兒暖了，又吹化了薛姑娘.(『紅樓夢·65回』)”, 把NPVP1VP2형의 “一句話又把寶玉說急了.(『紅樓夢·33回』)”, “想是連日聽舅舅時常讀他，把耳聽滑了.(『鏡花緣·31回』)”와 被動意味의 文인 NPVP1VP2형의 “只是杯盤菓菜俱已擺齊了.(『紅樓夢·50回』)”을 예로 들며, VP1VP2NP의 使成式(結果補語)은 漢代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했다.<sup>2)</sup> 이와 같다면 補語構文의 기본형식은 VP1VP2NP와 VP1NPVP2가 동시에 존재하다가 현재에 와서 VP1VP2NP 형식만 쓰인다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되어졌다면 VP1NP1VP2형식의 補語構文이 왜 사용되지 않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漢代 이전 初期 補語構文 VP1VP2NP형식은 VP1과 VP2가 병렬되어 빈어를 취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盾食

1) 小川環樹·沈慶昊 譯, 『唐詩概說』, p.17.

2) 王力(1990), 『漢語語法史』, pp.370~371참고.

飽則出, 何故拔木劍於君所. (公羊傳·宣4)(趙盾은 배 부르게 먹고 나갔는데, 무슨 까닭으로 君이 있는 곳에서 목검을 뽑는가?)“喫飽卽鳴杖以驅之還.(朝野僉載·4)(배 부르게 먹으면 지팡이를 두드려 소리를 내 수달을 쫓아 돌아가게 한다.)<sup>3)</sup>처럼 빈어가 출현하지 않으므로 단지 동사의 並列形式의 複合語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빈어가 출현할 때, 빈어의 위치는 보어 전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근대 한어 후기까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P1NPVP2문형이 많이 쓰인 世說新語의 용례와 각 시대에 따른 註를 살펴보자.

(2.12) 王飲酒畢, 因得自解去(世說新語·261)

(2.13) 謝公與人圍棋, 俄而謝玄淮上信至, 看書竟, 默然無言, 徐向局.(世說新語·286)

(2.14) 夷甫晨起, 見錢闥行, 謂婢曰: “舉阿堵物却”(世說新語·423)

(2.15) 庾仲初作「揚都賦」成, 以呈庾亮.(世說新語·201)

위의 예문 “王飲酒畢(왕은 술 마시는 것을 마치다)” “看書竟(글 보는 것을 마치다)” “舉阿堵物却(이 물건을 치우다)” “作「揚都賦」成(「양도부」를 짓다)”의 ‘畢’·‘竟’·‘却’·‘成’을 비록 {S[np(NP)VP NP]np [VP]}s 즉 ‘主+動+賓’ 名詞句의 述語로 볼 수도 있지만, 의미상 결과보어의 의미인 “完成”을 나타낸다. 이처럼 A.D 5世紀 『世說新語』에서 빈어 뒤에 쓰이는 결과보어가 唐 五代에 와서는 점점 아래처럼 빈어 앞에 놓이는 예를 볼 수 있다.

(2.16) 川乃拋却茶籃, 便歸. (禪宗集成·卷14·9217 下)

(천은 결국 차 바구니를 던져 버리고, 곧 돌아갔다.)

(2.17) 士曰: 瘞却我口, 塞却汝眼. …… 士奪却拂子, 却自豎其拳. (禪宗集成·卷14·9218 上)

3) 張鷟, 『朝野僉載』, p.101.

- (士曰: 내 입을 병어리로 만들고, 너의 눈을 멀게 하였다…….)  
 (2.18) 雪峰遂覆却米盆。(禪宗集成·卷13·9027 下)  
 (설봉은 종내 쌀통을 뒤집어 버렸다.)  
 (2.19) 昨夜床頭失却三文錢。(禪宗集成·卷13·9042 下)  
 (어젯밤 침대 머리에서 삼원을 잃어 버렸다.)  
 (2.20) 見了師兄便入來。(敦煌變文集·396)  
 (사형을 보자 들어왔다)  
 (2.21) 其鄭王閉却城西門, 城頭遙看。(敦煌變文·22)  
 (정왕은 성의 서문을 닫아걸고, 성루에서 멀리 바라본다.)  
 (2.22) 放過楚軍, 到峽路, 絆却馬脚。(敦煌變文·37)  
 (초나라 군사를 놓아주고, 좁은 길에 이르러 말 다리를 묶었다.)  
 (2.23) 聖人若飲, 改却酒名 …… (敦煌變文·198)  
 (성인이 만약 술을 마셨으면 술 이름을 바꾸었을 것이다. ……)  
 (2.24) 遺却珊瑚鞭。(崔國輔·長樂少年行)  
 (산호 채찍을 잃어버렸다.)  
 (2.25) 擔却一个佛, 傍家走……(祖堂集·316)  
 (불상 하나를 짊어지고, 곳곳을 다니며)  
 (2.26) 打破家具殺却火, 長伸瞌睡(祖堂集·294)<sup>4)</sup>  
 (가구를 부수고 불을 끄고 나서 몸을 쭉 펴고 잠들었다)

위의 예문에서 ‘却’·‘了’·‘破’가 술어와 빈어 사이에 놓여, 다시 말해 前置되어 결과보어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보어 ‘却’의 前置現象이 같은 문장에 쓰여진 예문을 楊勇『世說新語校箋』(p.423)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어 성분의 통시적(diachronic) 위치 변화를 알 수 있다.

『晉書·王衍傳』: 謂婢曰: 擧阿堵物却.

『唐卷』: 令婢擧阿堵物.

4) 朴英綠(1996)에서 재인용.

『宋本』：呼婢曰：舉却阿堵物。

그렇다면 위 예문에서의 “却”와 같은 謂語性質의 補語가 왜 前置되는가? 첫째 “却”의 품사성질이 虛化되어 “完了”의 의미를 나타낸다. 劉淇『助字辨略·卷5』(p.15)에서 “却”를 “了”로 해석하고, 張相『詩詞典語辭匯釋』(p.64)에서는 “却”를 ‘掉’·‘了’·‘得’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술어와 보어는 통사상·의미상 붙어 있으려는 특성 때문에 전치가 이루어졌는데, 즉  $VP1+NP+VP2rc \rightarrow VP1+VP2rc+NP \rightarrow VRC+NP$ 는 보어가 술어와 最小距離에 있으려는 Clark, H.H & Clark, E.V가 말한 最小距離原則(minimal-distance principle, MDP)으로 설명된다.<sup>5)</sup> 이 최소거리원칙과 상응하는 Stockwell과 屈承熹가 말하는 隣接原則(proximity)<sup>6)</sup>도 술어와 보·빈어는 서로 가까이 있으려는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VP1+VP2RC+NP$  보어구문이  $VP1+NP+VP2RC$ 에서 도출되는 구문의 변화는 唐 이후부터 술어가 빈어보다는 보어와 의미 관계가 밀접해져서 통사상 빈어 앞으로 전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빈어의 형태문제

술어가 급물동사(Vt)이고 보어는 불급물동사(Vi)로 구성된 補語構文으로,  $NP1VP1tVP2iNP2 = NP1VP1tNP2+NP1VP2i$ 인 문형이다. 王硯農 등의 『現代漢語—結果補語搭配辭典』에 수록된 수백 개의  $VP1t+VP2i$  예문 중 主稱補語<sup>7)</sup>는 불과 몇 개뿐이어서, 일반적으로 RC가 Vi

5) Clark & Clark(1977) “Psychology and language” p.360.

6) 戴耀晶(1998), p.3에서 개인용

7) 보어가 주어 또는 빈어와 의미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주칭·빈칭보어라

일 경우는 賓稱補語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3.1)과 (3.2)를 비교하여 보자.

(3.1) 他喝醉了酒.

(그는 술을 마셔 취하였다.)

(3.2) 他酒量不大, 不一會兒就讓人家灌醉了. (王·422)

(그는 주량이 크지 않아, 얼마 안 있어 사람들에게 의해 억지로 술을 마시게 되어 취하였다.)

(3.1)·(3.2)에서 “醉”는 똑같이 RC로 쓰였으나, 표술대상이 각기 다르다. (3.1)는 “他喝酒+他醉”로 주어를 표술해주는 主稱補語이나, (3.2)은 “他被人灌醉了←人家灌醉了他=人家灌他(人家勉强地把酒灌注到他嘴裏)+叫他醉”이므로 賓語 “他”를 표술해주는 賓稱補語이다. 이와 같은 주칭보어 (3.1)의 “~醉”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3.1) 他喝醉了酒.

- a. \*他喝醉了茅苔酒.
- b. \*他喝醉了三瓶燒酒.
- c. 他喝酒喝醉了.
- d. 他喝茅苔酒喝醉了.
- e. 他喝三瓶燒酒喝醉了.
- f. \*?他把酒喝醉了.
- g. ?酒把他喝醉了.
- h. 茅苔酒把他喝醉了.
- i. 三瓶燒酒把他喝醉了.
- j. 他喝醉了.

일반적으로 “看哭”·“干累”등의 補語構文에서, “哭”·“累”가 施事主

語를 表述하는 主稱補語일 때 “\*看哭了電影”·“\*干累了活”라 할 수 없는데, 왜 “酒”와 “飯”은 “喝醉”“吃飽” 뒤에 올 수 있는가? “酒”와 “飯”은 “說話”·“買東西”·“走路” 같은 動賓構造에서의 빈어처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虛賓語이다. “酒”와 “飯”은 말하자면 없어도 되는 셈이다.<sup>8)</sup> 趙元任은 이 같은 의미의 빈어를 同指賓語(Cognate Objects)라 하며, 이런 빈어는 동사 자체일 수 있다라고 했다.<sup>9)</sup> 이런 同指賓語의 작용은 “飯”이 米飯의 의미에서 먹는 것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것처럼, “特指”가 “泛指”로 바뀌게 된 것이다.<sup>10)</sup> 이처럼 “酒”·“飯”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泛指의 賓語이기 때문에 主稱補語文인 “喝醉”·“吃飽”의 뒤에 출현할 수 있다는 말이다.

“喝醉酒”에서 허빈어 ‘酒’의 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지·범지 개념 외에, 語彙選擇制限(lexicon selection restriction)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語彙選擇制限이란, VP 前後에 출현할 수 있는 NP가 VP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 제한이 강하면 출현할 수 있는 NP는 극히 적고, 약하면 출현할 수 있는 NP가 많다. “看哭”와 “喝醉”로 예를 들면, “看而哭”하는 과정에서 “看”의 빈어로 출현할 수 있는 NP는 “電影” 외에도 “書”·“情人”·“父母” 등 다양한 NP가 출현할 수 있으므로, “看”은 制限力이 약하여 “\*看哭了電影”이 非文이 되고, “看”의 대상을 밝혀 반드시 “看電影看哭了”라 말해야 한다. 그러나 “喝醉”는 정반대여서 “喝”의 대상을 밝히지 않아도 “醉” 하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나 다 “~酒”임을 추론(inference)할 수 있어서, “酒”가 형식에 불과한 泛指의 虛賓語이므로 “喝醉了酒”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8) 詹開第(1985), 「動結式動詞句與把字句的變換關係」, p.30, 李臨定(1986)『現代漢語句型』, p.186에서는 虛設性이라 함.

9) 趙元任 著·丁邦新 譯(1982), 『中國語的文法』, p.166, p.182.

10) 鄧守信(1984), 『漢語及物性關係的語義研究』, p.124.



(3.1)a~(3.1)j의 예문을 (語彙選擇制限 強-泛指)(語彙選擇制限 弱-特指)라는 두개의 조건으로 판별해보면, (3.1)a·(3.1)b는 “喝醉”의 ‘喝’가 語彙選擇制限이 강하므로 泛指的 NP가 출현해야 하는데, 特指的 NP가 출현하였으므로 非文이 된다. (3.1)c는 (3.1)의 범지의 “酒”와는 다른 특지의 “酒”로 간주해서, (3.1)와 (3.1)c는 의미상 변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sup>11)</sup> (3.1)g는 “酒”를 “這點酒”처럼 特指化 하여 “這點酒把他喝醉了” 따위로 해야한다. (3.1)h~(3.1)j는 위의 조건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한 합법적인 문장이다.

(3.1) k. (這點酒)把他喝醉了.

(3.2) a. 他……讓人家灌醉了.

b. 人家把他灌醉了.

위의 (3.1)k와 (3.2)a,b를 보면, (3.1)k는 일반적인 把字句와는 달리 原因道具의 受事인 “酒”가 주어 위치에 놓이고 술어의 施事이며 보어의 의미상 주어인 “他”를 “把” 뒤에 놓아 把字句를 이루고 있으나, (3.2)a,b는 일반적인 把字句처럼 술어의 施·受事に 의해 ‘被字句’·‘把字句’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a,b는 “人家灌醉了他”의 基本文型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5.13)b에는 使役의 의미가 없다. (3.2)는 본래 사역의 의미가 없는 “他喝這點酒喝醉了” 또는 “他喝醉了酒”라는 기본문형에서 도출되어 사역의 의미를 갖고 있다. (3.1)c는 (3.1)의 動詞 複寫(Verb Copying)인데, 統辭上 NP1VP1VP2NP2 와 NP1VP1NP2VP1VP2의 구조 차이도 있지만, 의미상 차이도 있다.

11) Li and Thompson은 (3.12)c 와 같이 動詞複寫(verb copying)를 할 경우에 직접빈어는 대개의 경우 비지시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3.12)c의 “酒”는 의미상 (3.12)의 虛賓語인 “酒”와는 다르며, (3.12)c는 구문상 (3.12)d~(3.12)e 의 “~酒”와 같이 구체적인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봐 (3.12)c의 “酒”를 特指로 처리하여 서술하였다.

(3.1) 他喝醉了酒.

(3.1)c. 他喝酒喝醉了.

c.a. 他喝三瓶茅苔酒喝醉了.

c.b. 他喝一杯茅苔酒喝醉了.

c.c. 他喝三瓶茅苔酒還沒喝醉.

c.d. 他喝三瓶茅苔酒已經喝醉了.

c.e. 他喝一杯茅苔酒喝醉了.

(3.1)j. 他喝醉了.

(3.1)와 (3.1)j의 통사구조는 다르나, “취하였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3.1)c.a~(3.1)c.e에서 (3.1)c.c는 “喝醉”를否정한 문이지만 주량이 제일 큼을 나타내며, (3.1)c.b와 (3.1)c.e는 주량이 아주 작음을 (3.1)c.a와 (3.1)c.d는 주량이 어느 정도 큼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의미 표현을 (3.1)와 (3.1)j는 할 수 없음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그러면 (3.1)c가 (3.1) 또는 (3.1)j의 단순한 동사복사 즉 동사중첩문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3.1)j는 어떤 기본문형에서 생성되었으며, (3.1)와 (3.1)c의 生成先後關係는 어떠한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현대한어의 共時的(synchronic) 現象인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通時的(diachronic)인 고찰이 검토되어야 된다. 앞 절에서 서술한 대로 술어와 보어는 통사상·의미상 붙어 있으려 하는 특성 때문에 전치가 이루어졌는데, 즉 VP+NP+VPrc→VP+VPrc+NP→VRC+NP는 보어가 술어와 最小距離에 있으려는 最小距離原則(minimal-distance principle. MDP)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 서술한 것을 (3.1) 他喝醉了酒 (3.1)c 他喝酒喝醉了 (3.1)j 他喝醉了에 적용해 보면 (3.1)·(3.1)c·(3.1)j 예문이 처음 唐代 이전에 만들어 졌을 때의 基本文型은 “他喝酒醉”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인간의 自然言語에는 自由變換(free variation)이 있기 마련이어서, 그 후에 (3.1) 他喝醉了酒는 “他喝酒醉”에 보어의 특성인 MDP가 적용되어 생

성되어졌고, (3.1)j 他喝醉了는 “他喝酒醉”에 虛賓語削除規則이 적용되어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c 他喝酒喝醉了는 “他喝酒醉”에 ① 통사구조의 필요성 {(3.1)c.a~(3.1)c.e의 예문같은 유형을 말하기 위하여} ② ‘酒’의 特指性 維持, ③ 어휘선택제한-弱이 적용되어서 동사복사가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추론은 다음과 같다. 他喝酒醉—動詞複寫→他喝酒喝醉—特指的 酒를 유지하기 위해서 虛賓語 酒 첨가→他喝酒喝醉酒—虛賓語削除→喝酒喝醉. “他醉了”의 경우는 他喝酒醉에서 “醉”의 원인이 되는 “喝酒”를 삭제 후 만들어진 것이라고도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추론으로 “喝醉”의 여러 문형은 “喝酒醉”에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한다. (3.1)g ?酒把他喝醉了는 他喝酒醉→他喝酒喝醉了→喝酒喝醉了他→喝酒把他喝醉了·這點酒把他喝醉了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변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빈어의 출현문제

술어가 급물동사(Vt)이고 보어는 형용사(A)로 구성된 VP1t+VP2a 補語構文의 대표적인 문은 (4.1)같은 예문으로, 여기에서 “飯”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說話”·“買東西”·“走路” 같은 動賓構造에서의 빈어처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虛賓語이다. 이 빈어의 작용은 “飯”이 “米飯”의 의미에서 단지 먹는 것으로 의미가 변해, 특지에서 범지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飯”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복사 즉 중복없이 직접 “吃飽” 뒤에 올 수 있다.

(4.1) 我吃飽了飯. (나는 밥을 먹어 배부르다.)

- a. ?我把飯吃飽了.
- b. ?他把酒喝醉了.

그렇다면, (4.1)a와 (4.1)b의 “飯”과 “酒”는 把字句에 쓰일 수 있을까? 結果補語에서 主·賓稱補語를 구분하는 이유는, 위 예문처럼 보아 뒤에 빈어가 있을 때, ‘把字句’·‘被字句’로 변형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主稱補語는 ‘把字句’·‘被字句’로의 변형이 불가능하다. 今井은 ‘白話 100萬字 텍스트’를 분석하여, 主稱補語의 총수는 132개인데 이중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것이 98개이고 목적을 취하는 것이 34개인데 이 중 “~膩” 한 개가 “把+目+動+補”의 형식을 취한다 했다. 이 사실은 主主動補, 즉 主稱補語는 目的語를 갖기가 賓稱補語보다는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sup>12)</sup> 主稱補語構文이 虛賓語를 가질 경우에, 賓語의 特指 조건과 부합되지 않아서 ‘把’·‘被’에 의해서 전치될 수가 없다. 이처럼 “吃飽飯了”에서 “飯”은 虛賓語이므로, “吃飽” 다음에 “米飯”·“面條”가 올 수 없다.

“吃飽”·“喝醉” 다음에 올 수 있는 빈어는 虛賓語만 올 수 있는데, Vt+A 형식의 主稱補語 구문에 (4.2)·(4.3)에서처럼 특지빈어가 올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4.2) 我已經幹膩了這樣的事情了。(李·189)<sup>13)</sup>

(나는 이미 이러한 일을 하는데 질렸다.)

(4.3) 我已經聽煩了這些話了。(李·189)

(나는 이미 이러한 말들을 듣는 것이 귀찮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王硯農 등의『結果補語搭配詞典』에서 “~膩”의 쓰임을 살펴보니, “~膩”의 예문이 32개 나오는데, 이 가운데 빈어를 갖는 19개 예문 중 文頭에 前置賓語를 놓는 예가 10개이고, 前

12) 今井敬子, 『現代中國語の主主動補と賓主動補』, pp.28~32. 主稱補語나 主主動補는 보어가 주어와 의관계를 갖고있는 구문을 지칭하며, 빈정보어나 빈주동보는 보어가 빈어와 의미관계를 갖고있는 구문을 지칭함.

13) 李臨定(1986), 『現代漢語句型』

置賓語를 주어와 술어 사이에 둔 예로 “孩子們球玩膩了” 하나이고 직접 빈어를 취한 것이 (4.4)·(4.5) 2개이며, 나머지 6개는 동사복사를 한 예문이다. “~煩”의 예문 5개중에서 (4.6)·(4.7)·(4.8)·(4.9) 4개가 主稱補語로 쓰였다.

(4.4) 我家住在魚市旁邊兒，我真閒膩了那種腥味兒。

(우리 집은 어시장 옆이어서, 나는 그런 비린내를 맡는 것이 정말 질린다.)

(4.5) 他演膩了反面角色了，想演別的角色。

(그는 부정적인 배역을 연기하는 것이 지겨워서, 다른 배역을 연기하고 싶어한다.)

(4.6) 老師總讓學生背課文，學生都背煩了。

(선생님은 늘 학생들에게 본문을 외우도록 하여서, 학생들은 외는 것이 귀찮다.)

(4.7) 約定的時間都過了半小時了，還不見他的人影，我們都等煩了。

(약속한 시간이 이미 삼십 분이나 지났는데도, 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 우리 모두는 기다리기에 지쳤다.)

(4.8) 托兒所的那個保育員看孩子看煩了，想離開這個地方。

(탁아소의 그 보모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귀찮고 지겨워서 이 곳을 떠나려 한다.)

(4.9) 那點兒事兒她說了多少遍了，我真聽煩了。

(그런 일을 그녀가 하도 여러번 이야기해서, 나는 정말 듣는 것이 지겹다.)

(4.2)·(4.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의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번째 가설로는 “這樣的事情”·“這些話”가 비록 代名詞와 量詞의 수식을 받을지라도 泛指를 나타내는 빈어로, “幹事情”·“聽話”와 같이 간주하여 虛賓語로 본다. 두번째 가설은 主稱補語構文이라 할지라도, 今井이 말한 것처럼 補語 자체가 主語 이외에도 의미를 보충설명하는 다른 名詞成分을 필요로 한다면 ‘把+賓語+述+補’ 형식의 把字句를

취하므로, 빈어를 직접 VP1t+VP2a 뒤에 놓을 수 있다. 세번째 가설로는 “膩”·“煩”의 품사성질 문제이다.

“膩”·“煩”이 형용사만이 아니라 及物動詞의 詞性を 갖고 있다면, VP1t+VP2t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어도 “膩”·“煩”이 (4.2) (我幹這樣的事情. 我膩了這樣的事情) (4.3) (我聽這些話. 我煩了這些話)처럼 빈어와 의미관계가 성립하면 보어 뒤에 직접 출현할 수 있다. 이 중 첫번째 가설은 (4.9)에 의해 성립될 수가 없다. (4.9)에서 “那點兒事”는 特指이어야만 주제화가 가능하므로 “那樣的事”·“這樣的事”도 특지이다. 이렇다면 “這樣的事情”·“這些話”도 泛指가 아닌 특지의 대명사구로써 “幹膩”의 빈어로 쓰였다. 그래서 첫번째 가설은 부정된다. 두번째와 세번째 가설에 의하여 (4.2)·(4.3)·(4.4)·(4.5)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4.6)·(4.9) 예문에서는 “~背煩課文”·“聽煩了那點事兒”라 할 수 있어도, (4.7)·(4.8) 예문에서 의미상 “他的人影煩”·“孩子煩”은 아니기 때문에 빈어를 문두에 놓거나 동사를 중복해서 사용해야만 된다.

(4.10) 他打球打熱了, 把運動衣脫了下來.

(그는 공놀이를 하고 더워서, 운동복을 벗어 버렸다.)

(4.11) 他喝酒喝熱了, 把衣扣都解開了.

(그는 술을 먹고 더워서, 옷 단추를 모두 풀어헤쳤다.)

위 예문은 NP1VP1tNP2VP1tVP2a=NP1VP1tNP2+NP1VP2a 문형이다. (4.10)의 “他打球打熱了”, (4.11)의 “他喝酒喝熱了”에서 보면 “熱”와 “球”, “熱”와 “酒”는 아무런 의미관계가 없으므로 (4.10)a \*打熱球了 (4.11)a \*喝熱了酒라 할 수 없다. (4.10)a·(4.11)a는 의미관계상 비문이 되지만, “打”와 “打熱”의 詞性 즉 “打”는 及物動詞라 賓語를 취할 수 있지만, “打熱”는 불급물이므로, 賓語를 취하면 非文이다.

VP1t+VP2a의 主稱補語構文에서, “吃飽”·“喝醉”는 虛賓語인 “飯” “酒”를 취하며, VP1t+VP2a의 主稱補語라 할지라도 보어가 주어 이외

의 명사성분을 필요로 하고, (2.3.2.) (4.3)에서처럼 보어 자체가 빈어와의 의미관계를 형성하면, 述補構造 뒤에 직접 特指賓語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賓語를 문두에 놓거나 動詞複寫를 하여야 한다.

술어가 급물동사(Vt)이며 보어는 형용사(A)로 구성된“NP1VP1t VP2aNP2=NP1VP1tNP2+NP2VP2a(他晾乾了衣服=他晾衣服+衣服乾了)”의 빈칭보어구문은 빈어를 가질 수 있으나, 受事賓語와 結果補語인 形容詞로 구성된 진술이 ‘못미침(不及)’을 나타내거나, ‘VP’의 ‘RC’의 의미가 ‘지나침(過分)’을 나타낼 경우에는, 직접 빈어를 취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把字句’나 受事賓語를 주어 위치에 놓는 ‘受事主語句’를 쓴다.

(4.12) a. 他把坑挖淺了.

(그는 구덩이를 팠는데 너무 얕다.)

b. 坑挖淺了.

c. \*他挖淺了坑.

(4.13) a. 他把鞋買大了.

(그는 신발을 샀는데 너무 크다.)

b. 鞋買大了.

c. \*他買大了鞋.

(4.14) a. 理髮員把她的頭髮剪短了.

(미용사가 그녀의 머리칼을 잘랐는데 너무 짧다.)

b. 她的頭髮剪短了.

c. \*理髮員剪短了她的頭髮.

(4.15) a. 他把這件衣服染紅了.

(그는 이 옷을 염색했는데 너무 붉다.)

b. 這件衣服染紅了.

c.\*他染紅了這件衣服.

(4.12) · (4.13) ‘NP2VP2a’ 진술의 결과는 어떤 정해진 기준에 못 미

치거나 넘침을 나타낸다. 즉 (4.12)“坑淺”은 구덩이의 깊이가 너무 얇음을, (4.13) “鞋大”은 신발의 크기가 신어야 할 치수보다 너무 큼을 나타낸다. (4.14)a 把字句와 (4.14)b 受事主語句는 모두 重義를 내포하고 있는데, 한 의미는 “理髮員剪她的頭髮+她的頭髮短了(從長變短)”로, 이때에는 기본문형 ‘NP1VP1tVP2aNP2’에서 把字句와 受事主語句가 변형되어 나와서, (4.14)c “理髮員剪短了她的頭髮”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의미는 “理髮員剪她的頭髮+她的頭髮過於短了 또는 她的頭髮剪得過於／太短了”로, “미용사가 그녀가 끊으려고 한 기준보다 너무 짧게 머리카락을 끊었다는”의미로 쓰였다. 이때에는 단지 把字句와 受事主語句만 있지 (4.14)c의 기본문형은 非文이 된다.

(4.15)a.b도 (4.14)a.b처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째 의미 즉 단순한 결과의 실현의미로 “他染了這件衣服+這件衣服紅了(從別的顏色變成紅色)”이다. 이때에는 기본문형에서 把字句와 受事主語句가 변형되어 나와서, (4.15)c도 非文이 아니다. 또 다른 의미 즉 어떤 결과에 대한 過·不及의 의미를 내포하는 뜻으로 “他染了這件衣服+這件衣服過於紅了 또는 這件衣服染得過於／太紅了”로 “그는 원래 염색하려던 것보다 이 옷을 너무 붉게 염색했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이 경우에는 단지 把字句와 受事主語句만 쓸 수 있고, 기본문형인 (4.15)c는 非文이 된다.<sup>14)</sup>

‘VP1tVP2a’ 補語構文에서 명사성분이 두 개 출현할 때, ‘NP2’의 위치문제는 ‘NP2VP2a’가 구성하는 진술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의 실현인지, 아니면 어떤 예정한 결과에 대한 過·不及인가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 할 수 있다. 어떤 결과에 대한 過·不及이 아닌 단순한 결과의 실현인 경우에는 “~大” “~紅” “~黑”의 VP1tVP2a 補語構文은 직접 受事賓語 NP2를 취한다. 결과보어로 쓰인 형용사가 過·不及의 뜻을 나타낼 때 빈어를 직접 취할 수 없는 이유로 詹(1985:30)은 VP1tVP2a

14) 詹開第(1985), 「動結式動詞句與把字句變換關係」, pp.28~29 參考.



에서 VP1t 는 及物動詞라 하더라도, VP1tVP2a자체 及物性이 없으므로 VP1tVP2aNP2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보다는 語義的制限으로, 結果補語가 단순한 결과의 실현인가 아니면 기대했던 결과의 過·不及인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 5. 맺음말

현대 중국어에서 빈어가 출현하여도 결과보어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에 보어가 출현하였을 때에는, VP1+VP2RC+NP와 VP1+NP+VP2RC 2개의 문형이 같이 쓰였다. 이 중 VP1+NP+VP2rc는 { s[np(NP)VP NP]np [VP] }s 즉 '(主)+動+賓' 名詞句의 述語로 볼 수도 있지만, 의미상 보어의 행위 동작의 의미가 술어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또한 보어는 술어동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려는 속성 때문에, VP1+VP2RC+NP 문형으로 바뀌었다.

보어 뒤에 출현하는 보어는 '喝醉酒'의 '酒'처럼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빈어를 虛賓語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허빈어란 개념과 어휘선택제한의 강·약 등으로 '喝醉酒' \*'喝醉三瓶燒酒'의 비문 여부를 서술하였다. '買大'·'買肥' 등의 보어구문은 빈어를 자유스럽게 취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많은 예문에 근거한 분석과 보어의 품사 성질의 분류 등이 필요하지만, 잠정적인 결론은 술어 동사의 결과에 대한 화자의 기대나 만족 여부에 따라, 빈어 출현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 <參考文獻>

今井敬子, 「現代中國語の主主動補と賓主動補」,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No.31, 1986

戴耀晶, 「試說漢語重動句的法價值」, 『中國語文』第2期, 1998

鄧守信, 『漢語及物性關係的語意研究』, 北京: 學生書局, 1984

- 리-롬슨·박종환 의 옮김, 『표준중국어문법』, 한울아카데미, 1989
- 馬寅·陸儉明, 「形容詞作結果補語情況考察1.2」, 北京: 『漢語學習』1.4期, 1997
- 梅廣, 「國語語法中的動詞組補語」, 臺北: 聯經出版社, 1978
- 文煉, 「詞語之間的搭配關係」, 『中國語文』第1期, 1982
- 朴英綠, 『祖堂集意味虛化研究』, 서울: 成均館大學 博士學位論文, 1996
- 范曉, 「V-R及其所構成的句式」, 上海: 『語言研究集刊』第1集, 1987
- 『禪宗集成』, 臺北: 藝文印書館(1973)
- 薛紅, 「VC的擴展及其分類」, 北京: 『語文論集』第3集, 1988
- 宋寅聖, 『祖堂集虛詞研究』, 臺北: 臺灣文化大學 博士學位論文, 1996
- 沈陽, 『現代漢語配價語法研究』, 北京, 1995
- 呂叔湘, 『呂叔湘語文論集』, 北京: 商務印書館, 1983
- 吳福祥, 「重談“動+了+賓”格式的來源和完成體助詞“了”的產生」, 『中國語文』第六期, 1998
- 王硯農等編, 『漢語動詞-結果補語搭配詞典』, 北京語言學院, 1987
- 劉義慶撰·楊勇校箋, 『世說新語』, 臺北: 洪氏出版社
- 劉義慶撰·劉孝標注, 『世說新語』, 北京: 中華書局
- 陸儉明, 「VA了述補結構語義分析」, 『陸儉明自選集』, 河南, 1990
- 李臨定, 「動補格句式」, 『中國語文』第155期, 1980
- , 『現代漢語句型』, 北京: 商務印書館, 1986
- 張鷟, 『朝野僉載』, 北京: 中華書局, 1997
- 趙元任著·丁邦新譯, 『中國話的文法』,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80
- 志村良治著·江藍生等譯, 『中國中世語法史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5
- 詹開第, 「動結式動詞句與把字句的變換關係」, 『語文論集』一集,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1985
- 詹人鳳, 「動結式短語的表述問題」, 『中國語文』第2期, 1989
- 崔承一, 「說說述補(結果)賓謂語句的語義結構係列」, 『漢語學習』第1期, 1991
- 黃錦章, 「行為類可能式V-R謂語句的邏輯結構與表層句法現象」, 『語言研究』第2期, 1993
- Anne Y. Hashimoto, *Mandarin Syntactic Structures*, Unicorn(Chi-Lin) No.8. : Chinese Linguistics Project, Princeton Univ, 1971
- Chen Chung-yu, *On predicative complement*, JCL7, 1979
- Clark & CLark, *Psychology and Languag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7